

사회

“5·18은 21세기 민주화운동 롤모델”

〈Role Model : 본보기〉

6개국 희생자연대 회원들 광주 방문... “민주·인권운동 적극 활용”

“30주년을 맞은 5·18민중항쟁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5월 정신’ 계승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아시아민주화운동의 진정한 ‘롤 모델’(Role Model)로 섰습니다.”

아시아의 민주·인권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아시아민주화운동가족연대모임’ 소속 회원들은 17일 광주를 방문, 5·18의 진정한 가치를 재확인했다.

아시아희생자연대 소속 회원 15명은 이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추모제에 참석해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캄보디아·인도네시아·네팔·스리랑카·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6개 국가 15명으로 구성된 ‘아시아희생자연대’ 회원들의 이번 광주방문은 (사)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5·18민중항쟁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민주·인권운동을 하다 희생된 피해자 가족들이다. 이들은 이날 추모제에 참석해 뒤 유영봉안소와 추모관 등을 일일이 둘러보며 ‘5월 정신’을 기렸다.

이들은 특히 5·18 유족회 회원으로 부터 5·18 역사적 의미·전개 과정·현주소·나이갈 길 등에 대해 전해들은 뒤, 아시아민주화 운동의 모범사례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975년 당시 코베르투주 정권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추모제에 참석한 ‘아시아민주화운동가족연대모임’ 소속 회원 15명이 헌화와 분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에 의해 어머니와 매형을 잃은 도록 부티(40·캄보디아)씨는 “직접 5·18민중항쟁의 현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듣고보니 5·18이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롤 모델’이 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캄보디아도 민주화 과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여는데, 국가 주도로 치러지는 5·18과 달리 종교적 색채가 강한 추모제에서 개선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피와피 무니르(여·42·인도네시아)씨는 “5·18의 역사적 의미와 진상규명 과정 등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면서 5·18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9월 인권활동가인 남편이 비행기 안에서 목살당한 뒤 인권운동가로 나선 그는 “오는 20일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5·18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확보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인권운동에 적극 활용하겠다”

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전야제에 참석, 주먹밥 만들기·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체험하며 ‘5월 정신’을 몸소 배웠다.

이들은 18일 30주년 기념식 행사장을 방문한 뒤 ‘아시아민주주의 발전 방향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박기준·한승철씨 소환... 접대 대가성 여부 추궁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조사단은 17일 박기준 부 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소환해 접대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한 조가 돼 두 검사장을 조사했다”며 “검사장들은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는 서울고검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와 리스트에 오른 다른 검사들, 접대 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 검사장의 기억을 되살려가며 세세한 접대 경위까지 확인했다.

두 검사장은 일부 내용은 시인했지만 부인하거

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도 있어 조사단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대조해가며 사실관계를 따졌다.

검사장들에 대한 조사는 접대를 대가로 청탁이 있었는지에 집중했다. 조사단은 박 검사장에게 정씨의 진정·고소 사건을 언제 인지했고, 이를 대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정씨의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강도높게 캐물었다.

만약 정씨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거나 관련 보고를 누락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들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 변호사는 말했다.

조사단은 박 검사장의 나빠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날 조사를 끝내겠지만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로 조사하고 정씨와의 대질 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완도 군정 왜곡보도 혐의

주간지 편집인 등 들 집유

광주지법 해남지원 박정재 판사는 17일 완도 군정을 왜곡 보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완도지역 모 주간지 감도 편집인과 명모 기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해당 주간지가 출판물을 통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해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산소마스크 女 ‘질식사’ 추정

드라이아이스가 범인?

밀폐된 차 안 산소부족

밀폐된 승용차 안에 놓인 드라이아이스가 사람을 질식사시킬 수도 있을까?

“20대 여성 산소마스크 의문사 미스터리” 사건(본보 5월15일자 3면)을 수사 중인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숨진 서모(여·26)씨의 1차 검안 결과,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씨의 눈에 일혈(溢血·신체의 조직 사이에 일어나는 내출혈) 현상이 생긴 점과 얼굴 광대뼈 주변이 검게 변한 점 등으로 미뤄 서씨의 사인을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서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S씨도 이산화탄소 과다 흡입으로 인해 폐에 문제가 생겨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4 20매 분량 ‘살해 시나리오’에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사기로 수면제를 요구르트에 넣어 마시게 한 다음 드라이아이스를 차 안에 두고 잠을 잡을 자다 질식사 하도록 하고 나는 미리 준비한 산소마스크를 쓴다”고 적혀 있었다.

S씨가 부상을 입은 원인이 드라이아이스 때문이라는 점이 확

인되면 서씨가 ‘살해 시나리오’대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숨졌다는 것을 뒷받침할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차 내 드라이아이스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고체 이산화탄소로 만든 냉각제이다.

전남대 공과대 한은미 교수는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원료이기 때문에 기화현상이 발생할 때, 이산화탄소가 생겨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람이 질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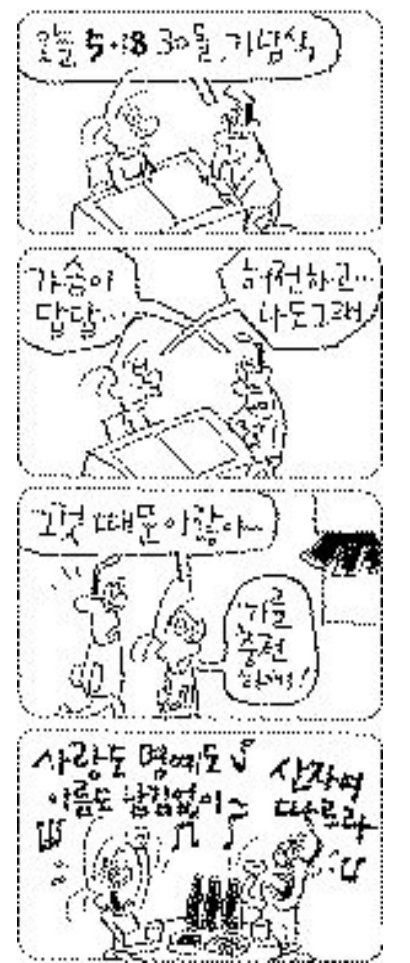
경찰은 드라이아이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서씨가 드라이아이스를 실제 구입, 차 안에 놓아 두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서씨가 ‘살해 시나리오’ 대로 동업자인 S(41)씨를 살해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숨졌는지 여부 ▲함께 차 안에 있던 S씨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서씨와 S씨 사이의 채무관계와 보험금 포기각서 등이 작성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동구 용산동 체육공원 옆길에 주차된 S씨의 포텐샤 승용차 안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8023) 김중두



전선 흠쳐 판 3명 검거

장흥경찰은 17일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전선을 흠쳐 고물상에 팔아 넘긴 문모(43·화순군 이양면)씨 등 일당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마을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장흥군 장동면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터널 내에 설치해 놓은 전선 6000여만 상당을 포함해 전국 25개 고속도로 현장에서 모두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광주서 올 첫 비브리오패혈증군

예년보다 2주 빨라

광주에서 유통중인 어패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군이 검출됐다.

17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일선 구청이 의뢰한 어패류 37건, 수족관 어류 3건 등 총 40건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국내산 갯고동에서 비브리오패혈증군(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

이는 예년에 비해 2주 가량 빠른 것으로, 최근 기온이 급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어패류와 수족관 어류 319건을 검사해 꼬막, 미더덕, 낙지 등 9건에서 비

▲비브리오패혈증=간질 환이나 당뇨병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만성 질환자들이 비브리오패혈증군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된다. 20~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급성발열·오한·혈압저하·복통·설사 증상이 동반된다. 발열 후 36시간 이내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치사율은 50%에 이른다.

브리오패혈증군이 검출됐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속인 양귀비 3000그루 검거

○목포해양경찰은 17일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를 대량으로 불법 재배한 무속인 김모(7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해남군 둔내면 임하도 선착장 부근 자신의 텃밭 160㎡에 콩과 함께 양귀비 3000여그루를 재배해 오다 해경에 적발.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크기가 비슷한 작물인 콩을 함께 재배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결국 해경에 탈피.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www.hanbit.ac.kr

개강 ▶ 6월 1주

압도적 7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79공무원 종합이론반 주·야간반 개설

전국유일 79공무원 단특반 매월 짝/을수반 개강

7.4공공문제분야, 7.4공공문제분야, 7.4공공문제분야

심화반과 23반, 23반, 23반, 23반, 23반

수석강사지배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